



세계 각 지역, 국가별 경제성장 전망

세계지역연구센터

I. 미국	VI. 러시아	1.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 2. 2009년 경제전망 3. 교역관계 전망
II. 일본	VII. 동남아	
III. EU	VIII. 중남미	
IV. 중국	IX. 중동	
V. 인도	X. 아프리카	

주요내용

▶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실물부문의 파급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 지난 10월 이후 미국과 EU를 필두로 많은 국가들이 금융시장 안정화와 유동성 확대 정책을 단행하면서 금융지표의 불안정성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비와 투자 감소 및 수출부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 2008년에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1% 내외로 낮아지고, 대부분의 신흥시장국들과 개도국들도 연초 예상보다 1~2% 하락한 4~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경우 2008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9.0%를 기록, 연속 5분기 동안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고 있음.

▶ 많은 국가들이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제전망기관들은 2009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경기침체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소비위축과 수출부진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EU 등 선진국 경제가 2009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경제는 2009년에 8%대까지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 러시아 등 신흥시장국들의 2009년 성장률 전망치도 최근 들어 대폭 하향조정되고 있음.

- 수출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이 2009년에 2%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ASEAN 국가들의 성장률도 연초 예상보다 1~2% 감소한 4%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중남미 국가들 중에는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등 중미국가들의 성장률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남미의 경우 1차상품 수출의존도가 높은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의 성장률 하락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 연초에 경기과열이 우려되던 중동지역 경제는 건설경기 위축과 유가하락에 따라 5% 이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아프리카지역 국가들도 일부 산유국들을 제외하면 2009년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거의 모든 국가들이 경기침체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과 투자진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 CEPA 체결로 수출여건이 개선된 인도를 비롯, 상대적으로 경기위축이 덜한 신흥시장국들을 대상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I. 미국

1.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

■ 주택금융 부실화로 인한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

-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부도위기, 9월 패니메와 프레디맥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정부관리체제 편입과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 AIG에 대한 구제금융지원 등으로 진행된 미국 금융위기가 전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됨.

■ 긴급경제안정화법안 이후에도 경제회생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불안감 잔존

- 10월에 7천 억 달러 규모의 긴급경제안정화법안이 통과되었으나, 금융위기 심화와 실물경기 침체의 상호 상승작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경기회생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08년 3분기에 본격적인 실물경기 침체기에 진입

- 2008년 3분기의 -0.3% 실질GDP성장 및 10개월 연속 고용 감소는 미국경제가 본격적으로 실물경기 침체기에 진입했다는 증거임.
- 2008년 3분기 미국경제는 소비지출 감소, 기업투자지출 감소, 건설투자 감소, 수출 증가세 둔화 등 거의 모든 거시경제지표에서 2분기에 비해 성장세 둔화 또는 감소세가 두드러짐.

표 1. 실질GDP성장률

(단위: %)

	2007	2008년			2008년 3/4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4	2/4	3/4	
GDP	2.0	0.9	2.8	-0.3	0.8
소비지출	2.8	0.9	1.2	-3.1	0.0
비거주투자	4.9	2.4	2.5	-1.0	1.8
거주투자	-17.9	-25.0	-13.3	-19.1	-21.3
수출	8.4	5.1	12.3	5.9	6.9
수입	2.2	-0.8	-7.3	-1.9	-3.1

자료: 미 경제분석국(BEA; 2008. 11), 전기대비 연율

- 2008년 3분기 개인 소비지출은 전기대비 -3.1% 감소하여 199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하락하였음.

■ 2008년 경제성장률 1%대 전망

- 최근의 금융시장 위기를 고려하면 4분기 소비지출이 더욱 악화되어, 2008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1%대 초반이 될 것으로 전망됨.

2. 2009년 경제전망

■ 경제 불확실성 증대 전망

- 서브프라임 부실의 정확한 규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 AIG 등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액도 기대치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미국 정부의 정책대응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예상 외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표 2.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예측기관	2007년	2008년	2009년
모건스탠리	2.0	1.3	-1.3
골드만삭스		1.3	-0.8
UBS		1.3	-0.6
IMF		1.4	-0.7
OECD		1.4	-0.9

주: 모건스탠리 2008년 11월 1일, 골드만삭스와 UBS는 2008년 11월 7일, IMF는 11월 6일, OECD는 11월 11일 전망치임.

■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에 경기침체 심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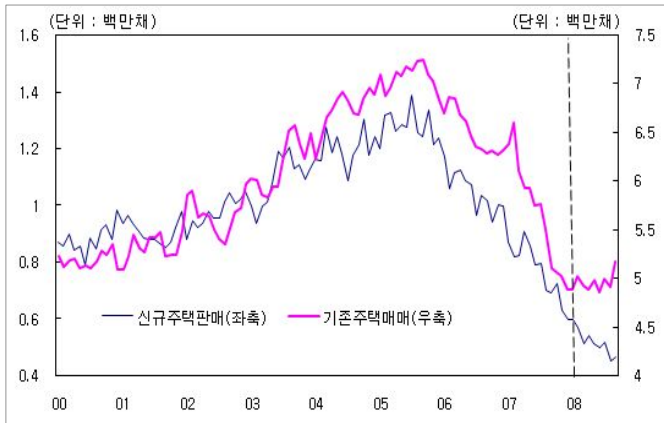
- 주식시장 침체 및 변동성 증대, 고용시장 악화, 주택시장 부실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2008년 4분기 성장률과 2009년 1분기 성장률 하락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 오바마 신정부의 적극적인 경기회생책과 FRB(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융정책 효과로 인해 2009년 하반기부터는 경기침체에서 다소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2009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0.5~-1.0%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경기 부진 지속 전망

- 오바마 신행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직

접지원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한 모기지 대출 축소, 고용상황 악화 등이 겹쳐 가계의 주택구입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2009년에도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신규주택 및 기존주택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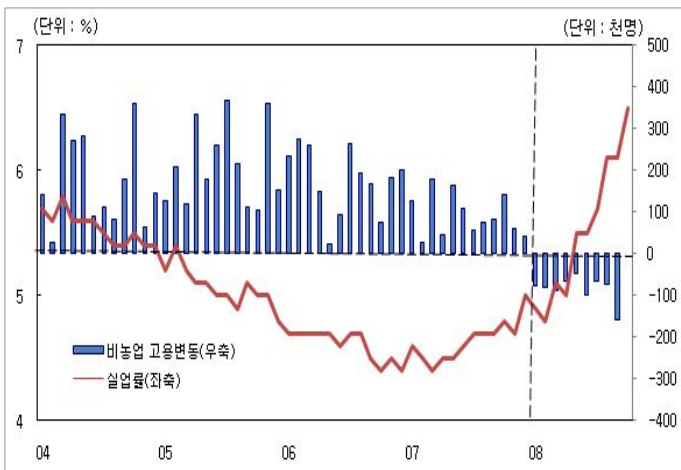


자료: 전미부동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 2009년 내 실업률 8% 근접 가능성

- 2008년 1~10월까지 연속 10개월간 고용이 감소하였고, 10월 한 달 사이에 240,000명의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고용감소가 제조업, 서비스업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

그림 2. 비농업 취업증사자 변동 및 실업률 추이



자료: 미국 노동부(2008.11)

-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2009년에도 고용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월평균 200,000명의 고용감소와 함께 2009년 실업률이 8%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음.

3. 한·미 교역관계 전망

■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세 둔화 및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전망

- 미국의 경기 둔화는 한국의 대미·대세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대미 무역수지 및 대세계 무역수지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 핵심 수출국이고, 미국 경제의 불안은 개도국을 통한 대미 우회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한국의 대세계 수출 및 무역흑자폭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됨.

표 3. 한국의 국가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371,489	100.0	329,189	100.0	356,846	100.0	343,863	100.0
중국	81,985	22.1	73,977	22.5	63,028	17.7	60,883	17.7
미국	45,766	12.3	34,978	10.6	37,219	10.4	30,077	8.7
일본	26,370	7.1	21,765	6.6	56,250	15.8	48,087	14.0

주: 2008년은 1~9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008.11)

연구진:

이준규 미주팀 팀장

(junkyul@kiep.go.kr, Tel: 3460-1128)

김종혁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Tel: 3460-1193)

고희채 미주팀 연구원

(hcko@kiep.go.kr, Tel: 3460-1086)

II. 일본

1.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

■ 세계 금융위기 이전의 경제상황

- 일본경기는 세계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이전인 2007년 10~12월기를 정점으로 이미 하강국면에 진입해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내각부의 「월례경제보고」는 일본 경제현황에 대한 기초판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8년 8월부터는 ‘회복’ 대신 ‘약화’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함.
- 최근의 GDP 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1~3월기에 0.7%(전기비) 성장을 기록한 이후 4~6월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세(-0.7%)로 전환됨.
- 민간설비투자는 이미 1~3월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4~6월기부터는 민간소비, 수출까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일본경제의 상승기조가 크게 꺾이기 시작함.
- 한편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이 나타나기 직전인 7~9월기의 GDP는 0%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연구기관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성장(예: 일본경제연구센터, -0.2%)을 예측하는 기관도 있어서 2사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성장세의 둔화요인으로는 수출증가세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비투자 감소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

- 세계 금융위기는 주가, 환율 등 일본의 금융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더 나아가 금융시장의 동요는 수출, 투자 등 실물부문의 하강 기조를 더욱 가속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7년 10월에 비해 2008년 10월의 주가는 무려 50% 이상

하락하면서 10월 중순 닛케이 평균주가는 8000엔 선이 붕괴되기도 하였음. 2008년 11월 17일 현재 닛케이 평균주가는 8,400엔 선에서 추이를 지속하고 있음.

- 세계금융위기 직전인 8월에 달러당 100엔 후반대를 보이던 환율은 9월 이후 100엔 전반대, 10월 이후에는 90엔대로 떨어지면서 엔화 강세가 급격히 진행됨.
- 주가하락, 엔고 등 거시금융변수의 변화는 기업수익 악화, 설비투자 감소세 지속, 수출둔화, 소비감소 등을 통해 실물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일본경제신문사의 조사(2008년 11월 8일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상장기업 989개사(전체 기업수의 61%, 이익 베이스로는 약 90%)의 2009년 3월기 경상이익은 약 22조 엔으로, 전년의 약 30조 엔에 비해 거의 8조 엔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전기기기 등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2008년도 일본의 실질GDP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음.
- 이는 2008년 1사분기에 0.7% 성장한 이후 2, 3사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4분기 이후에는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이 가세하여 마이너스 성장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참고로 일본은행은 0.1~0.2%, 일본총합연구소는 -0.1% 성장을 예상함.

2. 2009년 경제전망

■ 2009년(1~12월)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

- IMF는 -0.2%, EIU는 -0.1% 성장을 예측하고 있음. 한편 일본은행과 일본총합연구소는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점차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09년도(당해년 4월 - 다음해 3월)에 0%대 중반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음.
- 2008년 10월 31일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0.5%에서 0.3%로 0.2%포인트 인하하면서, 세계경제의 난국으로 인해 일본이 경제회복 조건을 갖추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공식 전망함.

표 1. 주요 기관의 일본경제 전망

	IMF	EIU	일본은행	일본총합연 구소
2008년	0.5%	0.3%	0%	-0.1%
2009년	-0.2%	-0.1%	0%대 중반	0.4%

주: IMF와 EIU는 각년도 1~12월, 기타는 각년도 4월 ~ 이듬해 3월 기준임.
 자료: IMF(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08.11.6), EIU(Japan: 5-year forecast table, 08.10.29), 일본은행(경제물가경제의 전망[2008년 10월, 2008.11.4], 일본총합연구소(일본경제전망 11월호, 2008.11.6)

3. 한·일 교역관계 전망

■ 원-엔 환율은 1,400원 중반대 유지 전망

- 달러화에 대한 엔화가치 상승 및 원화가치 하락이 원-엔 환율변동의 주요한 원인인데, 달러대비 엔화가치 상승의 경우, 해외에 투자된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해외 금융시장 안정세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원-엔 환율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한·일 무역의 증가세는 둔화 또는 감소 가능성

- 대일 수출: 2009년 일본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예상은 수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엔고는 수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특히 일본의 전기전자 및 자동차의 해외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서 대일 부품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대일 수입: 엔고는 수입물량 감소 효과를 낼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대일 수입품목의 대체재를 확보하기 어려워 수입액 증가와 무역수지 적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연구진:

정성춘 일본팀 팀장

(jung@kiep.go.kr, Tel: 3460-1202)

III. EU

1.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

■ 유동성 위기 심화와 금융시장의 불안정

- 2007년 하반기부터 유럽의 주택경기가 침체에 돌입했으며, 2008년 들어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이 더해지면서 유럽 금융기관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가운데, 다수의 부실은행들이 인수합병되거나 국유화되었음.
- 주식시장에서 영국의 FTSE100지수는 11월 7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리먼 사태가 발생한 9월 14일 대비 19.4%나 하락하였으며, 독일의 DAX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20.8% 하락함.
- 7월 중 한때 1.60달러까지 상승했던 달러화 대비 유로화 환율은 11월 7일에는 1.27달러까지 하락하였으며, 파운드화 환율도 1.98달러에서 1.55달러로 급락함.

■ EU 차원의 공동대응정책 실시

- 개별 회원국들의 중앙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 예금보장 등 대응정책이 효과를 보이지 않자, 10월 12일에 유로존 15개국 정상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 은행간 대출 보증, 금융기관의 도산 방지 등의 원칙을 세우고 EU 차원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취함.
- 10월 13일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들이 금융위기 완화를 위해 모두 1조 3천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구제금융안 계획을 밝히면서 유럽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됨.

■ 서유럽의 금융위기가 중동부 유럽국가로 파급

- 10월 28일에 헝가리가 IMF와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하였으며, 발트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과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에도 금융위기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상기 중동부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대비 10%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적자보전을 해외차입에 의존하여 외부 금융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 2008년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

- 2007년에 3.1% 성장하며 호조세를 보였던 EU 경제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전유럽으로 확산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평균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금융위기 및 주택경기 악화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세계경기 하락에 따른 수출감소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이는 독일의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됨.

2. 2009년 경제전망

■ 내수와 수출 모두 위축될 전망

- 주택 및 주식가격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가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고, 신용위기 속에 경영환경도 악화되면서 기업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투자 위축과 은행간 합병에 따른 대량해고, 산업생산 중단 등으로 인하여 고용시장도 악화되면서 가계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기 하락에 따른 수출감소가 예상되며 수입 또한 내수 위축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EU 경제, 마이너스 성장 내지 정체 예상

- 금융시장 혼란의 여파로 실물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의 전망치가 하향수정되고 있음(표 1 참고).
- 가장 최근(11월 6일)에 전망치를 수정한 IMF는 2009년에 모든 EU 주요 회원국들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EU 전체의 평균성장률도 -0.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3. 한·EU 교역관계 전망

■ 최근 한국의 대EU 수출증가세 둔화

- EU시장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¹⁾ 최근 들어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바, 2008년 1~9월 동안 EU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2.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0%보다 낮아짐.
- 특히 EU 주요 회원국에 대한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008년 1~9월 기준, 독일(-2.7%), 영국(-6.7%), 이탈리아(-2.7%), 스페인(-11.5%) 등.
- 또한 헝가리,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의 EU 신규회원국에 대한 수출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음: 헝가리(2007년(1~9월) 35.0% → 2008년(1~9월) 2.5%), 폴란드(2007년(1~9월) 30.5% → 2008년(1~9월) 27.6%) 등.

■ EU 내수위축으로 2009년 대EU 수출증가율의 큰 폭 둔화 예상

- 2009년 EU의 경기하락세 심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대EU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연구진:

김균대 유럽팀 전문연구원

(ktkim@kiep.go.kr, Tel: 3460-1064)

표 1. 예측기관별 EU 및 주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2007	EU 집행위원회				IMF			
			2008.4 전망		2008.11.3 전망		2008.10.3 전망		2008.11.6 전망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유로존 15개국	독 일	2.5	1.8	1.5	1.7	0.0	1.8	0.0	1.7	-0.8
	프랑스	2.2	1.6	1.4	0.8	0.2	0.8	0.2	0.8	-0.5
	스페인	3.7	2.2	1.8	1.3	-0.2	1.4	-0.2	1.4	-0.7
	전 체	2.6	1.7	1.5	1.2	0.1	1.3	0.2	1.2	-0.5
영 국		3.0	1.7	1.6	0.9	-1.0	1.0	-0.1	0.8	-1.3
EU27		3.1	2.0	1.8	1.4	0.2	1.7	0.6	1.5	-0.2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8.8), Economic Forecast; IMF(2008.11.6),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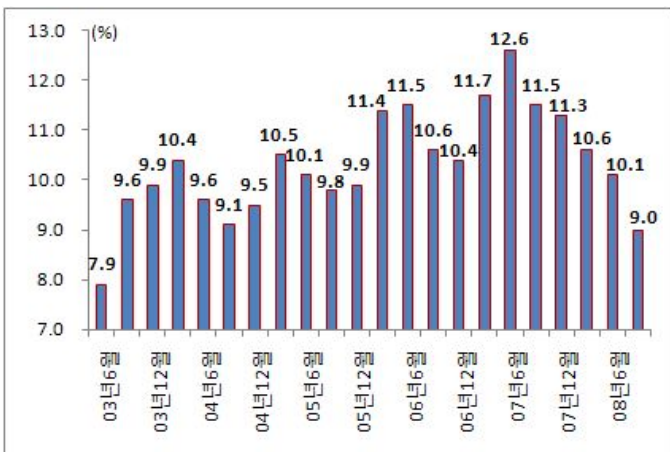
IV. 중국

1.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

■ 경제성장 둔화 가속화

- 중국경제는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9월 이전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었음.
- 2008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9.0%로 전년동기대비 2.5%p, 전분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하며 2007년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7.9%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3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그림 1.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이는 중국정부가 그동안 실시해 온 긴축정책의 영향과 대외 경제 여건이 동시에 악화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실물경제로 파급우려 대두

- 중국의 금융시장은 개방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세계 금융위기 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이나,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및 소비둔화 등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우려됨.
- 3분기까지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2.3%로 전년동기대비 4.8%포인트 하락한 반면 수입증가율은 29%로 9.9%p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47억 달러 감소한 1,81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08년 1~9월 기준 중국의 대EU 수출비중은 20.5%, 대미 수출비중은 17.6%로, 이들 국가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는 중국의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수출증가율 둔화와 함께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도 3개월 연속 둔화되며 10월에는 7년래 최저치를 기록함.
- 산업생산증가율: (6월)16.0% → (7월)14.7% → (8월)12.8% → (9월)11.4% → (10월)8.2%
- 3분기 발표된 경제지표상으로는 소비 및 투자부문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의 실질성장률 및 소비성 지출의 증가율은 둔화추세에 있음.
- 3분기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했으나,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질성장률은 15.1%로 전년동기대비 둔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소비부문 역시 전년동기대비 6.1%p 상승한 2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가격 요인을 제외한 도시(7.5%) 및 농촌 (11%) 지역 주민의 가처분소득 실질증가율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5.7%포인트 및 3.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 2009년 경제전망

■ 경기부양책으로 8%대의 성장률 예상

-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수출 및 산업생산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실물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세계 주요 전망기관들의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있음.

표 1. 주요 기관의 중국경제 전망

	GS	JP	MS	ML	GI	IM F	CS	중국인민은행	중국사회과학원
2008	9.8	9.6	9.8	9.9	9.8	9.7	8.7	-	10.1
2009	8.7	8.7	8.2	8.6	8.4	8.5	7.2	8~9.0	9.5

주: GS(Goldman Sachs, 08.10.28), JP(JP Morgan, 08.10.24), MS(Morgan Stanley, 08.10.29), ML(Merrill Lynch, 08.10.26), GI(Global Insight, 08.11.5), CS(Credit Suisse, 08.10.24), 중국 인민은행은 11월, 중국사회과학원은 10월 전망치임.

자료: 각 기관 사이트 및 국제금융센터

1) 2007년 우리나라의 대 EU수출은 559억 8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5.5% 증가함.

- IMF는 9.3%으로 예상했던 2009년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사이 8.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크레딧스 위스(7.2%), 크레디리요네증권(5.5%) 등 기관은 중국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고 전망함.
-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나, 중국 자체의 경기부양책의 실시로 그 여파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정부는 상반기 기업 수익증가율 하락 등 수출기업을 비롯한 중국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수진작을 위해 9월 이래 세 차례 금리인하를 실시한 데 이어 11월 9일에는 4조 위안(약 5,860억 달러)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4.0%로 최근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에 따라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장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어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정부도 통화정책의 방향을 '긴축'에서 '완화(適度寬松: 적당한 완화)'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 것으로 예상됨.

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금년 3분기까지의 무역수지 흑자는 130.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5.7억 달러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그 외에 우리나라의 투자패턴 변화로 인해 대중국 수출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원부자재 수출이 많은 비중(48.9%)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투자에 의한 수출유발 효과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 2000년대 대중국 제조업 투자비중이 약 83%였으나 2007년에는 66.6%, 금년 상반기에는 53.4%로, 제조업 분야의 대중투자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연구진:

이승신 중국팀 부연구위원

(sslee@kiep.go.kr, Tel: 3460-1235)

3. 한·중 교역관계 전망

■ 대중 수출 증가세 둔화, 무역수지 흑자 감소

- 중국의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상반기 27.5%, 3분기 25.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월별 증가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흑자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대중국 수출증가율: (6월)33.2% → (7월)30.1% → (8월)19.5% → (9월)15.5% → (10월 1~20일 잠정치) → -1.8%
- * 10월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1~20일간 수출실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10월 말까지의 수출실적을 더할 경우 한 자릿수

V. 인도

1.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

■ 주가 급락 및 환율 상승

- 인도증시는 2008년 1월 10일 SENSEX지수 21,207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 10월 27일에는 7,697까지 떨어지면서 연초대비 64% 급락하였음.
- 환율도 2008년 8월 17일 달러당 42.69루피에서 두 달 만인 10월 24일 49.98루피로 가치가 17% 이상 폭락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음.

■ 신용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이 더 큰 문제

-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해외자본의 유입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됨.
- 국내 금융권의 대출 기피 현상, 1년 만기 회사채와 국채의 금리 스프레드 확대(230bp) 등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한편, 신용리스크 증가로 CDS 금리가 상승하면서 해외 금융시장에서의 차입 또한 어려워짐.

■ 정부의 각종 대응책은 재정적자만 확대

- 지급준비율 인하, 외환시장 개입, 공적자금 투입 등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인도 정부의 조치가 아직까지 유동성 확대에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오히려 재정적자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신용등급을 하락시키고 재정운용 여력을 축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이미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는 지난 1~2분기 동안 산정예산의 177%를 넘었으며, 최근 금융시장 안정화 자금으로 총 1조 8,500억 루피(약 410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과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현재 S&P와 Fitch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인도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은 모두 투자적격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BBB-로 떨어짐.

■ 2008년 7% 성장 전망

-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회수 및 신규투자 유보, 부동산경기 위축과 함께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2008 회계연도(2008.4~2009.3) 상반기(3~9월) 산업생산지수는 4.9% 상승에 그침.
- 환율상승 및 수출대상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10월 인도의 수출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15%)된 반면,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의 금융·보험 분야에 진출하여 성공한 인도 IT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업체와 건설업, 항공업의 실적 둔화가 두드러지면서, 6~9월간 상장기업 전체의 순수익증가율이 10년래

최저치인 3%를 기록함.

- 하반기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8년도 인도 경제성장률은 7%를 가까스로 넘을 것으로 예상됨.

2. 2009년 경제전망

■ 본격적인 성장둔화세 예상

- 인도경제는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둔화가 심화되어, 2009년 성장률이 6%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IMF와 EIU는 금융비용 상승, 대외수요 축소, 산업생산 위축 등으로 2009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6.3%와 6.1%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인도 국내에서도 경제연구기관인 CMIE가 2009 회계연도 8.0% 성장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면, 만만한 싱 총리가 7~7.5% 성장을 예상하는 등 대부분의 국내 경제예측기관들이 2009년도 GDP증가율을 7%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지난 11월 4일 인도중앙은행이 발표한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에서는 2009년도 인도의 실질경제성장률이 6.2%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2009년도 인도 경제가 각각 5.8%와 5.7%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한층 비관적인 관측을 제시하고 있음.

3. 한·인도 교역관계 전망

■ 2008년 양국간 무역은 호조

- 2008년 1~9월중 대인도 수출에서는 인도경제의 불황에 따른 영향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음.
-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철강관, 무선통신기기 등에서 55%, 43%, 87%의 수출증가를 실현하면서, 금년 9개월간의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함.

품목명	비중	2007		2008(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00.0	6,600	19.3	6,767	43.0
자동차부품	14.6	879	40.4	989	54.5
철강판	11.6	763	54.3	784	43.0
무선통신기기	10.1	485	-60.8	685	87.1
석유제품	9.4	532	25.7	635	48.5
합성수지	4.3	226	23.7	293	83.0
선박해양구조물/부품	3.0	328	664.9	206	2.8
종이제품	2.3	114	-1.9	159	93.9
합성고무	2.2	115	88.5	147	87.2
기타기계류	2.2	206	26.1	146	8.0
기타석유화학제품	2.1	152	73.6	141	18.0

주: 품목별 비중은 2008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09년에도 예년과 비슷한 수출증가율 기대

- 향후 경기침체와 신용경색 등으로 인해 인도 내수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나, 2009년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가 발효되면서 예년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고관세 국가인 인도²⁾와 총 85%에 해당하는 교역품목의 개방이 예정되어 있어, 2009년부터 한국 수출기업들은 점진적인 자유화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2010년 개최 예정인 'Commonwealth Games'³⁾에 대비하여 인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델리 메트로 연장을 비롯한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 자재 및 용품 수출이 가능한 것도 한국 건설 및 플랜트 기업들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연구진:

최윤정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Tel: 3460-1039)

VI. 러시아

1.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

■ 금융시장 불안정

-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산과 더불어 국제유가의 하락,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로 인해 러시아 금융시장도 급격한 불안정 양상을 노정함.
- 러시아주가지수(RTS)는 5월 최고점을 기록한 후 서서히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9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기점으로 연초대비 50% 급락한 이후, 11월 11일 현재 연초대비 70%까지 폭락함.
- 2008년 상반기에 달러당 23~24루블을 유지하던 루블화 환율은 9월의 국제유가 하락과 더불어 상승하기 시작하여, 11월 12일 현재 달러당 27.3루블까지 급상승함.

■ 금융부문 안정화 조치 시행

- 러시아 정부는 국영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을 통해 기업의 대외채무상환을 위한 최대 500억 달러의 외환대출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또한 시중은행에 대해 최대 약 365억 달러(9,500억 루블) 규모의 5년 기한 후순위대출을 제공기로 함.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00% 보장되는 예금금액을 과거 10만 루블에서 70만 루블로 상향조정함.
-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개인예금 및 외환대출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0.5%까지 인하하였음.

■ 2008년 건실한 경제 펀더멘털로 7%대의 성장률 예상

- 2008년 1~9월간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동기대비 74.4% 증가한 912억 달러이며, 무역수지 흑자도 전년동기대비 623억 달러가 증가한 1,533억 달러임.

2) 2006년 기준 공산품의 양측 관세율을 비교하면, 한국이 6.3%인데 반해 인도는 13.9%에 달함.

3) 'Commonwealth Games'는 영연방국들이 4년마다 개최하며, 올림픽과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기임.

2. 2009년 경제 전망

■ 최근 IMF 등 국제기구들은 유가 하락, 외국인투자 감소, 대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조정함.

- 러시아 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위축, 산업생산증가를 감소, 실업률 증가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국제 석유수요가 감소하고, 주요 러시아 석유회사들의 자금부담에 따른 투자 축소로 인해 2009년 석유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내년 러시아 물가상승률은 2008년 14%대보다 다소 낮은 10~11%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은 달러당 26~27루블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지난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러시아와 세계의 금융불안이 가시화됨에 따라 2009년 경제성장률을 5~6%대로 전망했던 기관들도 일제히 3.5% 내외로 대폭 낮춰 전망하고 있음.

표 1. 주요 기관별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2007	2008	2009
IMF	2008. 10.	8.1	7.0	5.5
	2008. 11.		6.8	3.5
EIU	2008. 4.		7.2	6.4
	2008. 11.		7.2	3.7
Deutsche Bank	2008. 4.		7.4	6.0
	2008. 11.		6.9	3.4

자료: IMF; EIU; Deutsche Bank.

3. 한·러 교역관계 전망

■ 2009년에는 한·러 교역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007년과 2008년 1~9월간 한국의 대러 수출입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수출 증가율은 2007년 46.4% → 2008년 40.3%, 대러 수입 증가율은 2007년 50.7% → 2008년 32.7%로 하락하였음.

-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실물경기 위축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는 2009년에는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2008년에 비해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연구진:

황지영 유럽팀 연구원

(hjdream@kiep.go.kr, Tel: 3460-1095)

VII. 동남아

1.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

■ 직접적인 금융위기 피해는 미미

- 지난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에 따른 동남아 국가들의 직접적인 투자피해 규모는 매우 적거나 사소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은행들의 미국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규모는 전체의 5%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필리핀은 3억 8,600만 달러, 태국이 1억 2,400만 달러 정도로 소액이고, 해외자산 투자가 많은 싱가포르 역시 미국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극히 미미한 액수만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 주가 및 통화가치 하락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2008년 11월 10일 현재 동남아 주요국 주가는 연초대비 37.4~60.5% 하락했고,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직전인 9월 12일 대비 13.4~30.2% 낮아졌으며, 현지통화 환율은 연초대비 3.9~18.4%, 9월 12일 대비 2.1~4.4% 상승함.

- 국제금융센터로서 대외자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 자산운용사들의 경우,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증시의 하락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짐.

■ 실물경제 분야로의 파급 영향

- 동남아 국가들은 최근 현지통화의 평가절하에 의한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과 8월을 기점으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이 대부분 둔화되기 시작함.
- 인도네시아는 2008년 7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2008년 8월부터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 특히 동남아 최대의 수출국가인 싱가포르의 수출증가율은 2008년 2월부터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음.
- 특히 총수출의 47.5%를 차지하는 재수출(re-export)을 제외하면, 싱가포르의 국내경기와 직결되는 국내산 비석유류 상품 수출(Non-oil Domestic Export)은 2007년 하반기부터 수출증가율이 둔화되었고 2008년 5월부터는 마이너스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의 금융위기 대응 동향

싱가포르	2010년 말까지 국내외 통화 은행예금 전액 보장 통화정책기조 완화 GDP 3%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계획 발표
말레이시아	2010년 말까지 국내외 통화 은행예금 전액 보장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대상에 보험사 포함 70억 링깃(2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인도네시아	10월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상장기업 자사주매입한도 납입자본금 확대(10%→20%) 은행예금 보장한도 확대(1억→20억 루피아) 중앙은행, 상업은행의 대출담보물 범위 확대 예금지급준비율 158bp 인하
태 국	증시안정기금 조성
베트남	10월과 11월, 기준금리 연속 1%포인트씩 인하

자료: 필자 정리

■ 일부 국가들의 2008년 성장률 크게 둔화 예상

- 선진권 경기위축에 따른 수출증가율 둔화, 물가급등, 내수 시장 위축 등으로 일부 동남아 국가들의 2008년 경제성장률은 2007년에 비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 내수시장 호황인 인도네시아와 외국인투자가 활발한 일부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나, 싱가포르는 3.6%, 필리핀은 4.4%, 태국은 4.7%, 말레이시아는 5.8% 등 연초 성장률 예상보다 대폭 둔화될 전망이다.

표 1. 동남아 국가들의 GDP성장률 추이 및 추정(2005~08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추정
싱가포르	7.3	8.2	7.7	3.6
인도네시아	5.7	5.5	6.3	6.1
말레이시아	5.3	5.8	6.3	5.8
필 리 핀	5.0	5.4	7.2	4.4
태 국	4.5	5.1	4.8	4.7
베 트 남	8.4	8.2	8.5	6.3
캄보디아	13.3	10.8	10.2	7.0
라 오 스	7.1	8.1	7.9	7.5
미 얀 마	13.6	12.7	5.5	2.0

자료: IMF

2. 2009년 경제전망

■ 2009년 경제성장률은 2008년보다 더욱 하락할 전망

- 2009년 동남아 경제는 2008년보다 더욱 위축되어 싱가포르 는 2%대, ASEAN 5(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평균 4.2%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IMF는 11월 6일 자료를 통해 동남아 주요국의 200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0월 초 발표한 전망치보다 싱가포르 는 1.1%포인트, ASEAN 5는 0.7%포인트 하향 조정함.
- 다만, 인도차이나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5~7%의 경제성장을 시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표 2. 동남아 국가들의 2009년 GDP성장률

	2008. 10 발표	2008. 11 발표
싱가포르	3.5	2.0 ¹⁾
인도네시아	5.5	평균 4.2
말레이시아	4.8	
필 리 핀	3.8	
태 국	4.5	
베 트 남	5.5	
캄보디아	6.0	4.7 ²⁾
라 오 스	6.8	7.0 ²⁾
미 얀 마	6.0	n.a

주: 1) ANIEs 평균을 의미함.

2) Global Insight 11월 전망

자료: IMF

■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확대와 선진권의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망이 동남아 경제성장에 큰 타격

- 수출 및 외국인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동남아 경제의 속성장 선진권 경기의 위축은 수출부진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음.
- 2008년 상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내수시장 위축은 200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적자와 외국인투자자금 이탈이 지속될 우려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음.

■ 미국의 통상정책과 중국경제 성장률 하락도 악재

- 미국 신행정부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추진(무역흑자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 증대, 공정한 노동 및 환경 정책 준수, 무역구제조치 강화 등)과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 역시 동남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3. 한·동남아 교역관계 전망

■ 동남아에 대한 수출증가율 둔화

- 2008년 들어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7월과 8월에는 증가율이 각각 43%를 기록하였으나, 금융위기가 시작된 9월부터는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 2008년 1~9월 수출증가율은 40.6%에 그침.
- 2009년 동남아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된다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큼.

■ 투자환경 악화와 진출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 예상

- 최근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등장한 동남아의 많은 국가가 성장 둔화와 내수시장 침체를 겪을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고금리 정책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신규투자의 부진은 물론 기존 진출 기업의 경영여건도 악화될 수 있음.
- 또한 베트남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경우 2008년 상반기부

터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인해 현지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이에 따른 현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연구진:

정재완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jwcheong@kiep.go.kr, Tel: 3460-1051)

VIII. 중남미

1.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

■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 및 외환시장 혼란 지속

-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중남미 각국의 주가와 통화가치가 예외 없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혼란이 증폭됨.
- 11월 12일 현재 연초대비 주가는 페루(55%), 아르헨티나(53%), 브라질(45%), 멕시코와 콜롬비아(34%) 순으로 하락했으며 달러대비 통화가치도 브라질(31%), 칠레(29%), 멕시코(20%), 콜롬비아(15%) 순으로 급락했음.
- 특히 글로벌 신용경색과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국가위험도 상승으로 해외차입비용이 증가하며 중남미 국가들의 자금난이 가중됨.
- 연초대비 11월 12일 현재 중남미 각국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EMBI+(JP모건이 발표하는 신흥시장채권지수) 가산금리는 아르헨티나(263%), 베네수엘라(154%), 페루(141%), 콜롬비아(129%), 멕시코(122%), 브라질(83%) 순으로 크게 증가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전염효과 차단을 위한 다각적 대응책 강구

- 금융시장 혼란 차단을 위해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은 지난 10월 30일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유동성 공급 확대, 수출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함.

◦ 브라질의 경우 시중은행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은행의 지준율을 인하해 온 데 이어 지난 10월 22일에는 신용경색에 따른 시중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국책은행의 시중은행 지분 매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난 10월 21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연기금사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함.

■ 2008년 경제성장은 4%대 초반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용경색, 해외수요 감소, 1차상품 가격 하락, 해외송금 유입 감소 등의 경로를 통해 2008년 3분기부터 중남미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침.

– 그러나 2008년 중남미 경제는 상반기까지의 양호한 경제실적에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남미 국가들의 성장세에 힘입어 4%대 초반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국별로는 페루(9.1%), 아르헨티나(6.2%), 베네수엘라(5.4%), 브라질(5.3%) 등 남미국가들이 중남미 평균 경제성장세를 상회할 전망이다.

2. 2009년 경제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제성장세 둔화 전망

–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신용경색과 유동성위기, 해외수요 감소 및 1차상품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하락, 해외거주 중남미인들의 송금 감소 등 세계 금융위기의 전염효과가 보다 뚜렷이 나타나며 중남미 경제의 성장 둔화는 가시화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2009년 중남미 경제는 2008년의 절반 수준인 2%대의 성장에 머물 전망이다.

■ 지역별로 멕시코와 중미국가들의 경기하락 현저

– 지역별로는 수출 및 해외송금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와 중미국가들의 경기하락이 보다 현저할 전망이다.

– 특히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멕시코(07년 대미 수출의존도 76%)의 경우 2009년 경제성장률은 중남미 평균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1% 미만에 그칠 전망이다.

■ 1차상품 수출감소로 남미국가들의 경제성장세도 둔화

– 남미국가들의 경우 비교적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어 있어 미국 등 선진권의 경기침체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1차상품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브라질의 경우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신용경색과 이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위축, 1차상품 수출 하락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2008년 5%대에서 2009년에는 2%대 후반에 그칠 전망이다.

– 특히 1차상품에 대한 수출 및 재정수입 의존도가 높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의 경우 수출하락에 따른 경기하락 폭이 가장 클 전망이다.

■ 기초경제여건 강화로 과거보다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 낮아

– 중남미 경제가 그간 진전한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 운영, 해외차입 의존도 축소 등을 통해 기초체력을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남미지역의 외환 및 금융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과거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해외차입의존도가 높고 정부부채가 과다한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 일부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채무상환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디폴트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표 1. 중남미 경제성장 전망

(단위: %)

	2004~07 평균	2008	2009
아르헨티나	8.9	6.2	2.2
브라질	4.5	5.3	2.4
칠레	5.3	3.9	2.8
콜롬비아	6.2	3.4	2.8
멕시코	3.8	1.8	0.9
페루	7.1	9.1	5.5
베네수엘라	11.8	5.4	2.7
중남미	5.3	4.2	2.2

자료: EIU Viewswire.

3. 한·중남미 교역관계 전망

■ 수출 증가세 둔화 불가피

- 중남미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그간 중남미 경제의 고성장에 힘입어 크게 증가해왔던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지난 4년간(2004~07년) 대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31% 증가했으며 금년 9월까지도 그 증가세(37%)는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이 현지 수입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다 일부 품목에 대한 편중도(2007년 기준 10대 수출품목 비중 80%)가 높은 등 중남미 경제의 부침에 따라 변동이 심한 구조를 갖고 있어, 중남미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신규투자 진출이나 기존투자 확장도 지체

- 또한 세계 금융위기와 중남미 현지 경기둔화로 우리기업들의 중남미 신규투자 진출이나 기존투자 확장도 지체될 가능성이 큼.
- 현대자동차는 당초 금년 11월로 예정되었던 브라질 자동차 공장 기공식을 2009년 초로 연기함.

연구진:

권기수 미주팀 전문연구원

(kskwon@kiep.go.kr, Tel: 3460-1081)

IX. 중동

1.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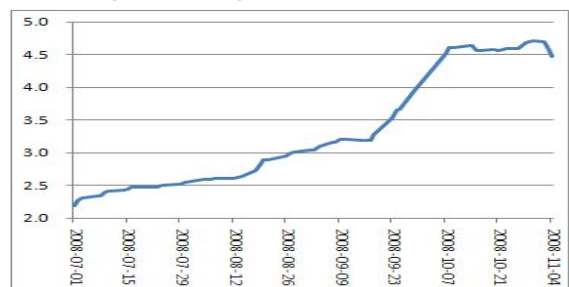
■ 경기과열에서 신용경색으로 반전

- 2008년 상반기까지 중동경제는 5년간의 고유가 덕분에 경기가 과열수준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였음.

- 하지만 9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역내 주식시장 급락과 금융기관간 신용경색 확산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11월 4일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주가지수는 연초대비 45% 하락하였으며, UAE 두바이 주가지수는 연초대비 51%, 쿠웨이트 주가지수는 연초대비 22% 하락하였음.
-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상반기까지 1~3% 수준이던 산유국들의 1개월 만기 은행간 금리(inter-bank rate)가 지난 10월 중에는 4~5% 중후반대까지 상승하였음.

그림 1. UAE 은행간 금리 변동 추이



주: 2008년 7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1개월 만기 은행간 금리 추이임.
자료: Bloomberg

■ 부동산 대출 부실화 우려 고조

- 중동 신용경색의 주요 진원지는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으로, 투자자본 이탈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증폭되면서 역내 금융시장 불안이 촉발되었음.
- 중동 산유국 정부들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적 공조체제하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공급, 예금 지급보증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

표 1. 중동 주요 산유국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국명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UAE	9월 22일, 자국은행에 대한 136억 달러 유동성 공급계획 발표 10월 8일, REPO 금리를 1.5%로 0.5%p 인하 10월 12일, 은행예금(외국은행 포함)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및 190억 달러의 추가 유동성 공급계획 발표
사우디아라비아	10월 12일, 정책금리를 5%로 0.5%포인트 인하 및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을 13%에서 10%로 3%포인트 인하
쿠웨이트	10월 8일, 환매조건부채권금리(REPO rate) 2.5%로 1%p 인하 10월 18일, 고객예금 지급보증 조치 발표 10월 30일, REPO 금리를 2.0%로 0.5%p 추가 인하

자료: 언론보도를 토대로 필자 작성

2. 2009년 경제전망

■ 국제유가 하락으로 성장률 하락 불가피

- 세계적 불황과 석유수요 둔화로 2009년에는 국제유가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동의 경제성장률 역시 하락이 불가피해 보임.
- 국제유가와 중동지역 성장률 간 관계를 고려할 때 국제유가의 하락이 오일머니의 유입감소와 정부의 투자지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됨.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어려움과 신용경색으로 많은 개발 프로젝트가 축소되거나 지연될 것이고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국부펀드 중 일부를 경기진작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유가하락의 충격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성장률 5%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

- IMF는 최근 2009년도 중동지역 경제성장률을 5.9%에서 5.3%로 하향 조정했지만, 세계경제 불황과 국제유가의 급락을 고려할 때 이 수치도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중동국가의 금융시장 안정조치와 외환보유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금융부문의 위기 심화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 개발 등 자산시장의 침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표 2. 중동지역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항목	2008년 전망치			2009년 전망치		
	08.10	08.11	변동폭	08.10	08.11	변동폭
성장률	6.4	6.1	-0.3	5.9	5.3	-0.6

자료: IMF(2008.11)

3. 한·중동 교역관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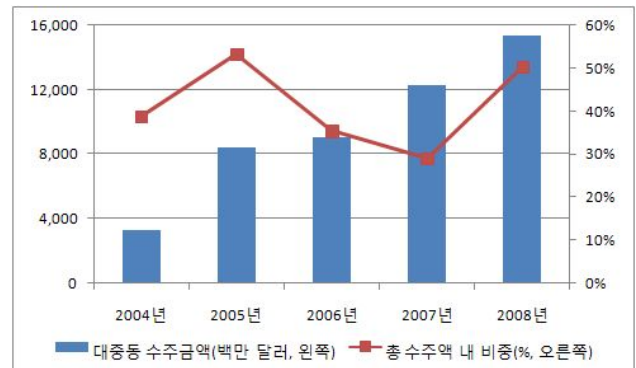
■ 대중동 무역수지적자 감소 전망

-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대중동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중동 수출 증가세 역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9월 말 기준 대중동 수입액은 817억 달러(전체 수입의 23.7%)로 전년 동기대비 70% 이상 급증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수입액이 약 150~2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2008년도 대중동 수출금액은 19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 가량 증가했으나 내년에는 중동시장의 경기 부진으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플랜트 수주에도 악영향

- 중동은 우리나라 플랜트 수주의 50%(2008년 10월 말 현재 153억 달러)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시장이지만, 2009년에는 현지의 투자부진으로 수주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시장침체로 인해 부동산개발투자 형식으로 중동에 진출한 기업들의 어려움도 예상됨.

그림 2. 대중동 플랜트 수주금액 및 비중 추이



주: 2008년 수치는 10월 말까지의 수주실적임.

자료: 한국플랜트협회

연구진:

박복영 아중동팀 팀장

(bypark@kiep.go.kr, Tel: 3460-1149)

박철형 아중동팀 연구원

(chpark@kiep.go.kr, Tel: 3460-1092)

X. 아프리카

1.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

■ 세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본시장은 영세하고 세계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 낮아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받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2008년 아프리카 경제는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5.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개발원조 감소, 선진국의 수입시장 위축, 해외송금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경우 아프리카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아프리카 경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투자 및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바,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와 원조가 감소할 경우 각종 개발프로젝트에 차질이 우려됨.
-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이 아프리카 전체 수출의 70%를 점하고 있는바, 이들 선진시장의 경기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예상됨.
- 또한 세계적인 원유수요 감소로 국제유가의 급락세가 지속된다면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경제 위축도 불가피할 것임.

2. 2009년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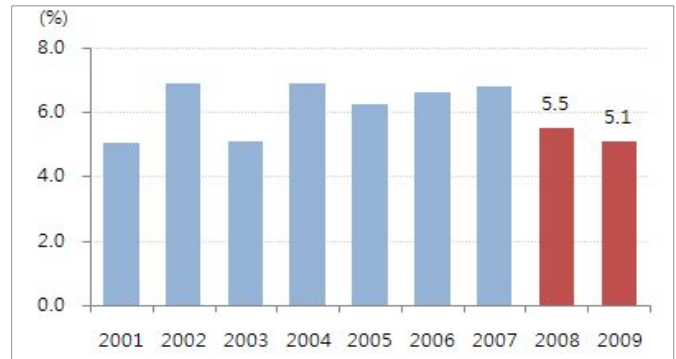
■ 경제성장세 둔화 전망

- 아프리카 경제는 주력 수출품인 원유 등 일차산품의 국제가격 상승, 외국인투자 및 원조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부터 5~6%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음.
- 그러나 전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FDI 및 ODA

감소, 해외송금유입 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2009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IMF는 최근 2009년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을 2008년보다 다소 낮은 5.1%로 전망함.

그림 1. 아프리카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



주: 2008년과 2009년은 전망치.

자료: IMF(2008.11),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D

■ 산유국과 비산유국간의 엇갈린 경제성장 명암

- 앙골라, 수단, 나이지리아 등의 석유자원 부국들은 고유가 시기에 시작된 대규모의 석유개발 및 SOC 건설투자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이 기대됨.
- 이에 반해 비산유국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한 대외원조 감소,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인플레이션,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성장률이 5% 미만에 머물 것으로 보임.

표 1. 2009년 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경제 전망

	해당 국가
저성장국 (3% 이하)	코모로(1.7), 스와질란드(2.5), 남아공(2.9) 등의 비산유국
중간성장국 (3~5%대)	케냐(5.6), 가봉(4.3), 보츠와나(4.8), 세네갈(4.7), 카메룬(4.8) 등의 비산유국
고성장국 (6% 이상)	앙골라(15.4), 나이지리아(7.2), 수단(7.2) 등의 산유국

자료: Global Insight, 각국 경제성장 전망.

■ 소비자물가 안정세 전망

-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원유와 식량 등 생필품 가격의 안정으로 2008년(12%)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1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3. 한·아프리카 교역관계 전망

■ 한·아프리카 경제 교류 지속

- 2009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이로 인해 한국과 아프리카간의 경제교류가 위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아프리카 산유국과의 협력 확대

-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락으로 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저하되고 있으나, 신흥 자원개발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
-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앙골라 등 신흥 산유국과는 교역, 건설 플랜트, 자원개발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연구진:

박영호 아중동팀 부연구위원

(parkyh@kiep.go.kr, Tel: 3460-1231)

허윤선 아중동팀 연구원

(yshur@kiep.go.kr, Tel: 3460-1116)